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
유아 놀이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Moderating Role of Young Children's Playfulness and the Associ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d Young Children's Peer Competency*

이상은(Sang Eun Lee)¹⁾

이주리(Ju Lie Lee)²⁾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role of young children's playfulness and the associ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d young children's peer competency.

The subjects of the present study were 132 4 or 5-year-old young children and their mothers recruited from child-care centers in Seoul and Gyeonggi-Do.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maternal parenting influenced children's peer competency. Second, young children's playfulness influenced young children's peer competency. Third, the association between overprotective and permissive maternal parenting styles and young children's leadership abilities were negative only in the low cognitive playfulness group. Fourth, the association between maternal rejective and negligent parenting and young children's socialibility were found to be negative only in the low physical playfulness group.

Key Words : 어머니의 양육행동(maternal parenting), 유아의 놀이성(young children's playfulness), 유아의 또래 유능성(young children's peer competency).

* 본 논문은 2010년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¹⁾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전공 석사

²⁾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u Lie Lee, Department of Child-welfare, Chung-Ang University, 221, Heukseok-dong,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E-mail : julie@cau.ac.kr

I. 서 론

최근 맞벌이 증가, 저 출산, 조기교육의 영향 등으로 인해 유아는 어려서부터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을 통해 또래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맞벌이 가정 대부분의 유아들은 어린이집에서 긴 시간 동안 또래와 함께 지내고 있으며 또래로부터 받는 영향 역시 커지고 있다. 그리고 저 출산으로 형제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됨에 따라 또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Hartup(1983)은 아동기에 또래와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은 이후의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또래관계에서 경험하는 문제는 학교중퇴, 비행, 정신 병리적 문제 등 이후의 부적응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Coie, Lochman, Terry, & Hyman, 1992) 또래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며, 또래 관계 내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다.

부모와 또래관계에 대한 관련된 선행연구들(권연희, 2002; 김지신, 1996; 박주희, 2001; 임희경, 2008)을 살펴보면 주 상호작용 대상인 어머니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김미경·김연화·한세영, 2008; 손승희·이은혜, 2004; 신선희·차윤희·김영희, 2008; 이지희·문혁준, 2008; 이지희·문혁준, 2010; 임연진, 2002).

김지신(1996)은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합리적일수록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절하고 사교적이며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반면, 어머니가 통제적이거나 거부적인 아동은 복종적이고 공격적이며 불안해하고 타인에 대한 사려가 부족하다고 하였고, 박주

희(2001)는 어머니가 과보호를 덜 할수록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주도적이라고 하였다. 한편, 임희경(2008)은 과보호·허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어머니의 자녀는 또래 유능성이 낮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또래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유아는 또래의 놀이를 모방하며 놀이시 발생된 또래와의 갈등을 통해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 있게 된다. 유아는 또래와 함께 즐거하는 놀이를 공유하면서 관계가 친밀해지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질수록 놀이가 확장되기도 한다. 즉, 놀이를 통해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며 경험을 재구성하는 등 놀이 속에는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면 그 특징이 각각 다르며 유아들에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놀이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최근의 몇몇 연구자들(Barnett, 1990, 1991; Lieberman, 1965, 1977; Rogers, 1988)은 놀이성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Lieberman(1965)은 놀이성은 놀이를 하게 하는 잠재적인 힘이며 성향이라고 하였다. 놀이성의 다섯 가지 구성요인으로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그리고 유머 감각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놀이성이 개인마다 다양한 놀이행동을 나타나게 해준다고 하였다. 놀이성은 유아의 또래간의 적응을 예측해주고(김영희, 1995),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를 각각의 하위 요소별로 살펴보았을 때 모든 요소 간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은, 2006). 그리고 놀이성이 높은 유아가 또래관계에서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유능성이 높았다(임희경, 2008).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놀이성이 또래간의 관계 형성 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유아의 놀이성은 유아에게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정에서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어머니는 유아의 놀이 대상으로서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모델링이 되며 유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양육행동 역시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들(김정숙, 2005; 박정연, 2009; 여주영, 1985; 장은정, 2001; 장은주, 2000; 정지은, 2003)에서도 부모의 관계나 양육행동이 유아의 놀이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박정연(2009)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통제적일수록 신체적 자발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일수록 인지적 자발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은정(2001)은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자녀의 놀이성은 높고, 어머니가 거부적이고 통제적일수록 자녀의 놀이성은 낮았다. 반면, 김정숙(2005)은 유아의 놀이성은 어머니의 온정·격려, 과보호·허용,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행동이나 습관에 대한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유아의 신체적 자발성과 유머감각의 놀이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또래 유능성,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변인들에 대한 관계를 단편적인 측면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일 연구모형 안에서 각 변인들에 대한 통합적인 관련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성을 연결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유아의 정서성(권연희, 2003), 놀이성의 매개효과(임희경, 2008), 유아의 내적 표상(정지나, 2006)등의 구체적인 과정이

연구되어 왔으나 부족한 실정이다. 임희경(2008)은 유아의 놀이성을 매개 변인으로 가정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 거부양육태도만 유아의 놀이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부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어머니의 온정과 통제 양육태도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어머니 양육태도 및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의 놀이성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놀이성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유아의 놀이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8곳을 선정하여 만 4세, 만 5세 유아 132명과 그의 어머니 13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빈도	%
유아의 성별	남자	56	42.4
	여자	76	57.6
유아의 연령	만 4세	74	56.1
	만 5세	58	43.9
유아의 출생순위	외동	18	13.6
	첫째	53	40.2
	둘째	56	42.4
	셋째	5	3.8
자녀 수	1명	23	17.4
	2명	93	70.5
	3명	16	12.1
어머니 연령	25-29세	3	2.3
	30-34세	28	21.2
	35-39세	80	60.6
	40-44세	17	12.9
	45세 이상	4	3.0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25	18.9
	전문대 졸업	34	25.8
	대학교 졸업	61	46.2
	대학원 졸업	12	9.1
어머니 직업	자영업	8	6.1
	판매/서비스업/기능직(상점점원, 세일즈맨 등)	10	7.6
	전문직(대학교수, 교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20	15.2
	사무직(회사원, 은행원 등)	30	22.7
	전업주부	48	36.4
	기타	16	12.1
월 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2	1.5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1	8.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1	23.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9	22.0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6	19.7
	500만원 이상 무응답	32 1	24.2 0.8
합 계		132	100.0

2. 연구도구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주희

(2001)가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척도로는 온정·격려(11문항), 한계설정(8문항), 과보호·허용(7문항), 거부·방임(8문항)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해당 특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온정·격려 .874, 한계설정 .818, 과보호·허용 .791, 거부·방임 .825로 나타났다.

2) 유아의 또래 유능성

본 연구에서는 박주희·이은혜(2001)가 개발한 또래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가 평가하는 것으로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로 5문항씩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하위 영역별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래 유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 신뢰도 Cronbach's α 는 주도성 .993, 친사회성 .902, 사교성 .944로 나타났다.

3) 유아의 놀이성

Lieberman(1965)의 놀이성 정의에 기초하여 Barnett(1990, 1991)이 제작한 유아의 놀이성 척도를 유애열(199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유아(만 2세부터 만 5세)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관찰자 평정 척도로서 관찰자는 교사이다. 신체적 자발성(4문항), 사회적 자발성(5문항), 인지적 자발성(4문항), 즐거움의 표현(5문항), 유머감각(5문항) 등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의 놀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 신뢰도 Cronbach's α 는 신체적 자발성 .793, 사회적 자발성 .875, 인지적 자발성 .870, 즐거움의 표현 .884, 유머 감각 .884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 사전조사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 대상이 아닌 만 4세, 만 5세 유아의 30명의 어머니와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질문지를 돌리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8곳의 만 4세,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선정된 학급의 어머니들에게 유아를 통해 질문지를 전달하고 회수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또래 유능성 및 유아의 놀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유아의 담임교사에게 설명을 한 뒤 질문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어머니용 질문지가 회수된 유아의 자료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질문지의 각 문항을 점수화 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통계 프로그램 12.0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Cronbach's α 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녀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One way Anova를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방법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는 단순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유아의 놀이성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보기위해 상호작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분석

1.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간의 상호상관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간의 상호상관을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온정·격려와 유아의 놀이성 중 즐거움의 표현과는 $r = .181(p < .05)$ 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거부·방임과 유아의 놀이성 중 신체적 자발성, 유머감각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과는 $r = -.173(p < .05)$ 에서 $r = -.190(p < .05)$ 의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에

<표 2>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간의 다중상관관계

	온정 격려	한계 설정	과보호 허용	거부 방임	신체 자발성	사회 자발성	인지 자발성	즐거움 표현	유머 감각	유아 놀이성 전체	사교성	친 사회성	주도성	또래 유능성 전체
온정격려	1													
한계설정	.396**	1												
과보호허용	-.126	-.138	1											
거부방임	-.174*	.111	-.037	1										
신체자발성	-.070	-.068	.048	-.053	1									
사회자발성	.095	.129	-.067	-.173*	.363**	1								
인지자발성	.038	.131	-.064	-.187*	.338**	.666**	1							
즐거움표현	.181*	-.051	-.076	-.190*	.325**	.548**	.492**	1						
유머감각	.104	-.004	-.071	-.048	.444**	.287**	.216*	.332**	1					
유아놀이성 전체	.098	.036	-.065	-.180*	.684**	.786**	.747**	.748**	.643**	1				
사교성	.303**	.219*	-.189*	-.299**	.220*	.640**	.543**	.475**	.246**	.585**	1			
친 사회성	.194*	.092	-.178*	-.203*	.113	.644**	.494**	.503**	.104	.510**	.736**	1		
주도성	.193*	.155	-.198*	-.218*	.293**	.778**	.629**	.560**	.279**	.699**	.695**	.653**	1	
또래유능성 전체	.257**	.175*	-.212*	-.269**	.238**	.774**	.626**	.577**	.239**	.675**	.905**	.885**	.887**	1

* $p < .05$. ** $p < .01$. *** $p < .001$.

대해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온정·격려와 또래 유능성과는 $r = .193(p < .05)$ 에서 $r = .303(p < .01)$ 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한계설정과 또래 유능성의 하위 요인 중 사교성과는 $r = .219(p < .05)$, 또래 유능성 전체와는 $r = .175(p < .05)$ 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과보호·허용과 또래 유능성과는 $r = -.178(p < .05)$ 에서 $r = -.212(p < .05)$,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거부·방임과 또래 유능성과는 $r = -.203(p < .05)$ 에서 $r = -.299(p < .01)$ 의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유아의 놀이성 중 신체적 자발성과 또래 유능성 중 친 사회성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

과는 $r = .220(p < .05)$ 에서 $r = .293(p < .01)$, 유아의 놀이성 중 유머감과 또래 유능성 중 친 사회성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과는 $r = .239(p < .01)$ 에서 $r = .279(p < .01)$ 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유아의 놀이성 중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과 또래 유능성과는 $r = .475(p < .01)$ 에서 $r = .778(p < .01)$ 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

<표 3>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결과

		B	표준오차	β	t	F	R ²
유아의 또래 유능성 전체	(상수)	10.079	1.130		8.922	6.408***	.168
	온정격려	.402	.266	.138	1.513		
	한계설정	.324	.236	.124	1.372		
	과보호허용	-.804	.353	-.187	-2.279*		
	거부방임	-.987	.312	-.265	-3.162**		
사교성	(상수)	3.326	.403		8.249	8.125***	.204
	온정격려	.178	.095	.167	1.877		
	한계설정	.156	.084	.164	1.854		
	과보호허용	-.245	.126	-.156	-1.947		
	거부방임	-.398	.111	-.294	-3.576***		
친사회성	(상수)	3.332	.415		8.029	3.376*	.096
	온정격려	.126	.098	.123	1.293		
	한계설정	.039	.087	.042	.452		
	과보호허용	-.249	.130	-.164	-1.920		
	거부방임	-.252	.115	-.193	-2.201*		
주도성	(상수)	3.421	.469		7.292	4.295**	.119
	온정격려	.098	.110	.083	.888		
	한계설정	.129	.098	.122	1.312		
	과보호허용	-.310	.147	-.179	-2.117*		
	거부방임	-.336	.130	-.224	-2.595*		

* $p < .05$. ** $p < .01$. *** $p < .001$.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은 16.8%를 설명하며 과보호·허용($\beta = -.187, p < .0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부·방임($\beta = -.265, p < .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은 20.4%를 설명하며 거부·방임($\beta = -.294, p < .001$)이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은 9.6%를 설명하며 거부·방임($\beta = -.193, p < .0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은 11.9%를 설명하며 과보호·허용($\beta = -.179, p < .0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부·방임($\beta = -.224, p < .0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결과

		<i>B</i>	표준오차	β	<i>t</i>	<i>F</i>	<i>R</i> ²
유아의 또래 유능성 전체	(상수)	2.020	.633		3.190	47.461***	.653
	신체자발성	-.261	.157	-.102	-1.657		
	사회자발성	1.537	.199	.584	7.710***		
	인지자발성	.423	.182	.169	2.331*		
	즐거움표현	.503	.163	.202	3.080**		
	유머감각	.031	.143	.013	.215		
사교성	(상수)	.928	.290		3.201	20.948***	.454
	신체자발성	-.076	.072	-.082	-1.056		
	사회자발성	.428	.091	.446	4.696***		
	인지자발성	.173	.083	.189	2.085*		
	즐거움표현	.129	.075	.142	1.718		
	유머감각	.057	.065	.066	.874		
친사회성	(상수)	1.118	.273		4.097	23.459***	.482
	신체자발성	-.137	.068	-.152	-2.025*		
	사회자발성	.490	.086	.528	5.704***		
	인지자발성	.079	.078	.090	1.014		
	즐거움표현	.215	.070	.246	3.060**		
	유머감각	-.068	.062	-.081	-1.100		
주도성	(상수)	-.026	.258		-.099	46.088***	.647
	신체자발성	-.047	.064	-.046	-.739		
	사회자발성	.619	.081	.583	7.618***		
	인지자발성	.171	.074	.169	2.307*		
	즐거움표현	.159	.067	.159	2.393*		
	유머감각	.041	.058	.043	.710		

* $p < .05$. ** $p < .01$. *** $p < .001$.

3.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은 65.3%를 설명하며 사회적 자발성($\beta = .584, p < .001$), 인지적 자발성($\beta = .169, p < .05$), 즐거움의 표현($\beta = .202, p < .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은 45.4%를 설명하며 사회적 자발성($\beta = .446, p < .001$), 인지적 자발성($\beta = .189, p < .0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은 48.2%를 설명하며 신체적 자발성($\beta = -.152, p < .05$), 사회적 자발성($\beta = .528, p < .001$), 즐거움의 표현($\beta = .246, p < .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은 64.7%를 설명하며 사회적 자발성($\beta = .583, p < .001$), 인지적 자발성($\beta = .169, p < .05$), 즐거움의 표현($\beta = .159, p < .0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놀이성의 조절효과

어머니 양육행동 및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유

<표 5> 과보호·허용이 주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의 놀이성의 조절효과

주도성	모형 1				모형 2				
	B	β	t	p	B	β	t	p	
(상수)	.315		1.101	.273	-.941		-1.228	.222	
독립변수									
과보호허용(A)	-.231	-.133	-2.543*	.012	.727	.419	1.369	.174	
조절변수	신체적자발성(B)	-.029	-.028	-.464	.644	.230	.222	1.541	.126
	사회적자발성(C)	.614	.578	7.721***	.000	.935	.880	4.272***	.000
	인지적자발성(D)	.165	.163	2.277*	.024	-.188	-.185	-.952	.343
	즐거움표현(E)	.153	.152	2.341*	.021	.222	.221	1.154	.251
	유머감각(F)	.029	.031	.512	.610	.089	.093	.582	.562
상호작용변수	A×B				-.187	-.512	-1.899	.060	
	A×C				-.266	-.561	-1.670	.098	
	A×D				.291	.661	2.068*	.041	
	A×E				-.056	-.134	-.406	.685	
	A×F				-.055	-.111	-.482	.631	
R^2			.664				.686		
ΔR^2			-				.022		
F			41.150				23.874		
p			.000				.00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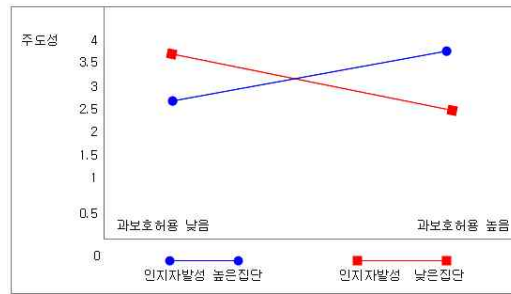
아의 놀이성의 각각의 하위요인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과보호·허용이 주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의 놀이성의 조절효과

<표 5>에 제시되었듯이, 양육행동 중 과보호·허용과 주도성간의 관계에 있어 놀이성의 하위요소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과보호·허용과 놀이성의 하위요소를 곱하여 상호작용변수를 구성한 후 이를 회귀분석 모형에 각각 투입하여 설명력의 변화량이 유의하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차항들을 투입하였을 때, R² 증가분이 주도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이 중

과보호·허용×인지적 자발성의 상호작용 변수가 주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과보호·허용×인지적 자발성 : $\beta = .661, p = .041$). 그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과보호·허용이 주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적 자발성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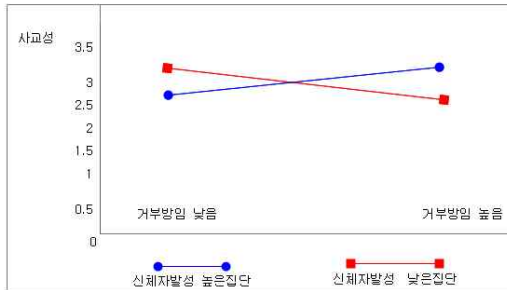
<표 6> 거부·방임이 사교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의 놀이성의 조절효과

사교성	모형 1				모형 2				
	B	β	t	p	B	β	t	p	
(상수)	1.428		4.142	.000	1.980		2.565	.012	
독립변수	거부방임(A)	-.229	-.169	-2.553*	.012	-.609	-.449	-1.382	.169
	신체적 자발성(B)	-.071	-.076	-1.000	.319	-.405	-.435	-2.272*	.025
	사회적자발성(C)	.421	.438	4.707***	.000	.568	.592	2.017*	.046
	인지적자발성(D)	.157	.171	1.920	.057	.130	.142	.496	.621
	즐거움표현(E)	.109	.120	1.482	.141	.170	.187	.811	.419
	유머감각(F)	.060	.069	.929	.355	.095	.110	.519	.605
상호작용 변수	A×B				.222	.704	2.105*	.037	
	A×C				-.111	-.290	-.682	.496	
	A×D				.032	.082	.209	.835	
	A×E				-.036	-.108	-.320	.750	
	A×F				-.026	-.070	-.229	.819	
	R ²			.481				.502	
ΔR^2			-				.021		
F			19.308				10.977		
p			.000				.000		

*p < .05. **p < .01. ***p < .001.

2) 거부·방임이 사교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의 놀이성의 조절효과

<표 6>과 같이 양육행동 중 거부·방임과 사교성간의 관계에 있어 놀이성의 하위요소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거부·방임과 놀이성의 하위요소를 곱하여 상호작용변수를 구성한 후 이를 회귀분석 모형에 각각 투입하여 설명력의 변화량이 유의하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차항들을 투입하였을 때, R^2 증가분이 사교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이 중 거부·방임×신체적 자발성의 상호작용 변수가 주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거부·방임×신체적 자발성 : $\beta = .704, p = .037$), 그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거부·방임이 사교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체적 자발성의 조절효과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유아의 놀이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봄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의 놀이성의 하위요인에 대한 조절효과를 알아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온정·격려 정도가 높으면 유아의 또래 유능성도 높고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한계설정 정도가 높으면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사교성도 높으며 유아의 또래 유능성 전체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과보호·허용과 거부·방임 정도가 높으면 유아의 또래 유능성은 낮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방임 정도가 높아지면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과보호·허용 정도가 높아지면 주도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격려적일수록 유아의 또래 유능성이 높고 과보호·허용과 거부·방임 정도가 높으면 유아의 또래 유능성이 낮다는 박은미(1993), 박주희(2001), 양혜련(2000)의 연구와 일치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온정·격려 정도가 높으면 유아의 또래 유능성이 높게 나타난 점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에게 또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모델이 되며, 긍정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 인해 유아는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 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한계설정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간에 정적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한계설정이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 책임감, 독립심, 주도성과 정적관계가 있다는 연구(권윤정, 1999; 김정아, 1990; 박범실, 1987; 손승희, 2002)와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한계설정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은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임희경, 2008)와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에 많은 한계를 정해줄수록 유아가 공격적 행동, 비협조성을 많이 보인다는 다른 연구(김경희, 1996; 이경희·최경순, 1992)의 결과가 있으므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간에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놀이성 중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정도가 높아지면 유아의 또래 유능성 전체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의 놀이성 중 사회적 자발성과 인지적 자발성이 높아지면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사교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신체적 자발성이 낮아지고 사회적 자발성과 즐거움의 표현이 높아지면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친사회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이 높아지면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주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놀이성이 높으면 전반적으로 유아의 또래 유능성도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여러 선행 연구(김근희, 2005; 김영희, 1995; 이경실, 1997; 이재은, 2006)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유아의 놀이성이 또래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의 놀이성의 조절 효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과보호·허용인 경우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주도성과 전반적으로 부적관계로 나타났지만, 유아의 놀이성 중

인지적 자발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허용과 주도성이 정적 관계를 보였다. 오직 유아의 놀이성 중 인지적 자발성이 낮은 집단에서만, 어머니의 과보호·허용적인 양육태도와 유아의 또래와의 관계에서의 주도성이 부적관계를 나타냈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과보호·허용인 경우 주도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유아의 개인적인 특성 상 인지적 자발성이 높은 경우라면, 그러한 양육태도가 반드시 부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점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유아에 대해 지나치게 과보호하거나 허용적으로 대할 경우 유아의 발달에 대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지지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변인들 간 관계에 대해 반복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방임인 경우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사교성과 전반적으로 부적 관계를 나타냈지만, 유아의 놀이성 중 신체적 자발성이 높은 집단은 어머니 거부·방임양육태도와 유아사교성간에 정적관계를 보였고, 오직 유아의 놀이성 중 신체적 자발성이 낮은 집단에서만 어머니 거부·방임양육태도와 사교성간의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방임인 경우 사교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유아의 놀이성 중 신체적 자발성을 높여준다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로 조절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방임으로 인해 또래와 어울리거나 수용될 때 어려움을 겪지만 신체활동이 높아진다면 또래집단에 잘 수용되며, 여러 아이들과 고루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유아의 놀이성의

조절효과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부정적일 경우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유아의 놀이성이 또래와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부정적인 경우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유아의 놀이성이 또래와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또래관계에서 어려움과 관계가 있지만, 유아의 놀이성으로 또래관계에서의 취약성을 상쇄시켜 줄 수 있다는 임희경(2008) 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과보호, 거부 등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인하여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아들에게 유아의 놀이성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긍정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인해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유아들에게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제시해주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유아의 사교성과 주도성 같은 또래역량은 수줍음, 적응성, 기분과 같은 유아의 기질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유아의 기질도 함께 포함하여 유아의 기질을 통제하거나 기질특성을 함께 탐색하는 연구가 권장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 일부 지역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평가가 자기보고에 의한 것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객관적으로 평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평가함으로써 좀 더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서 연결해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있지만 놀이에 대한 연구와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여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권연희(2002).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윤정(1999).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희(1996). 또래인기도와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 해결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근희(2005).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경 · 김연화 · 한세영(2008).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7), 71-84.
- 김영희(1995). 아동의 놀이성 군 확인과 관련 변인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숙(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지위 및 놀이성.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범실(1987).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그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미(199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정연(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주희 · 이은혜(2001). 취약한 아동용 또래 유능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21-232.
- 손승희(2002).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과 또래 유능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승희 · 이은혜(2004).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4), 167-177.
- 신선희 · 차윤희 · 김영희(2008). 어머니의 놀이성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281-299.
- 양혜련(2000).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인기도와 사회적 문제해결행동.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여주영(198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놀이 활동성과의 관계.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애열(1994). 유아의 상상놀이와 교사개입에 관한 관찰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희 · 최경순(1992). 아동의 대인간 문제 해결력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3(2), 83-97.
- 이경실(1997).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희 · 문혁준(2008). 아동의 정서성, 정서조절 능력 및 어머니 양육행동이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4), 1-14.
- 이지희 · 문혁준(2010).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 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 분석. **아동학회지**, 31(3), 17-32.
- 이재은(2006).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연진(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4.
- 임희경(200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및 또래 유능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은정(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은주(2000).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 유아 내적 표상의 매개 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지은(2003). 어머니 양육태도와 정신지체아동 놀이성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지나(2006).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 유아 내적 표상의 매개 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Barnett, L. A. (1990). Playfulness : Definition, design, and measurement. *Play & Culture*, 3, 319-336.
- Barnett, L. A. (1991). The playful child : Measurement of a disposition to play. *Play & Culture*, 4, 51-74.
- Coie, J. D., Lochman, J. E., Terry, R., & Hyman, C. (1992). Predicting early adolescent disorder from childhood aggression and peer rejection. *Journal*

-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438-446.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pp. 103-196). New York : Wiley.
- Lieberman, J. N. (1965). Playfulness and divergent thinking :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ship at the kindergarten level.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7*, 219-224.
- Lieberman, J. N. (1977). *Playfulness : It' s relationship to imagination and creativity*. New York : Academic Press.
- Rogers, C. S. (1988). *Measuring playfulness : Development of the Child Behaviors inventory of Playfulnes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uthwestern Society of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New Orleans. LA.

2010년 8월 31일 투고, 2010년 11월 7일 수정
2010년 11월 11일 채택